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대입 공부방’ 운영 “학교 간 진학지도 격차 해소, 저경력교사 지도역량 강화”



10월 31일 나주고등학교 대입 공부방을 방문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참여 교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간 진학지도 격차를 해소하고 저경력 교사의 대입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대입 공부방’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사들에게 진학지도 방법을 전수해주는 대입 공부방은 일반고 91교 가운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수능 2주를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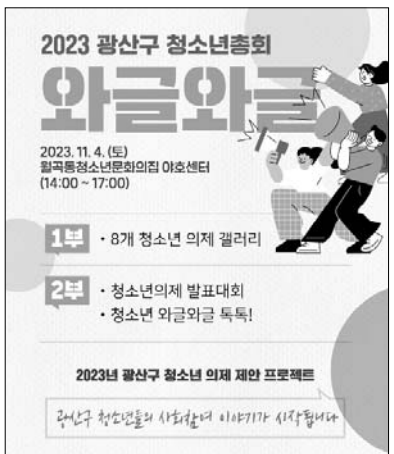
둔 10월 31일 나주고등학교 대입 공부방을 찾아 참여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대입공부방은 광주교육대학교 류운희 입학사정관 팀장을 강사로 위촉해 운영됐다. 나주고 교사들의 사전질의를 받아 현장에서 답하고,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평가 방법, 학생부 기록, 면접 지도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호 기자

“청소년정책, 우리가 직접 제안한다”

산구 청소년총회 ‘와글와글’…4일 아호센터



광산구는 4일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아호센터)에서 2023년 광산구 청소년총회 ‘와글와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와글와글’은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으로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까망이작은도서관,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고려인마을 청소년문화센터, 전남공업고등학교 등 관내 8개 기관 소속의 청소년 200여 명이 참여한다.

기관별로 1개 의제를 선정해 발표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요청부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진다.

청소년들이 발표한 8가지 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에 내용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동구 ‘재난대비 상시훈련’ 나선다

롯데백 광주점 대형화재 가정한 유관기관 토론회

동구는 2일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발생 대비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함께 ‘2023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중점사항 중 재난유형별로 높은 수준의 대응·수습 역량이 요구되는 부분과 지난 6월 진행한 안전한국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분야를 선정해 집중·숙달하는 훈련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 화재 발생(시민 1천여명 긴급 대피)을 계기로 이날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가정하여 비상 대응 시

문제점을 발굴·논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롯데백화점 광주점, 동부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행안부 평가단이 ▲훈련 내용의 충실성 ▲돌발상황 대처 능력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단은 올해 중점사항으로 재난관리평가 지표상, 단체장의 훈련 참가 점수 배점을 상향해 훈련 기관장의 참여 의지와 관심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북구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오는 8일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 명 참여



북구가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첨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노사 화합 한마당은 중소기업 간 소통과 노사 협력의 장을 마련해 함께 상생하는 기업 문화화를 조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와 산업단지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추진되는 행사이다.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구 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식전 공연, 개회식 등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권형안 기자

광주시, 외국 숙련기능인력 비자 가점 추천제

비전문취업·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등록외국인 대상

광주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30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자격의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무 중인 사람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

4 고용계약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사람 등 4개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산업계 인력 부족 상황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업무 숙련도와 사회통합도에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평균소득·나이 등의 이유로 전환 요건 최소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추천 가점 30점을 부여해 비자 전환을 허용, 숙련기능인력(E-7-4) 확대한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내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 사업주가 광주시의 추천 결과를 통보받은 뒤 법무부 하이라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장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시 공고문을 참고,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외국인주민과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상현 시 외국인주민과장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총과 2023 교섭·협의 시작

교권보호 및 신장·교원 업무경감·근무여건 개선 등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월30일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광주교총)와 2023 교섭·협의를 시작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

육감과 김덕진 광주교총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청 중회의실에서 ‘2023 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광주교총은 지난 2020년 합의와

대비해 기존 205개 조항보다 18개 더 많은 223개 조항에 대한 교섭과 협의를 요구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주로 ‘교권보호 및 신장’, ‘교원 업무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광주교총과 함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교섭·협의를 들어가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성실한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 함께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소방본부, 수능 수험생 119도우미로 나선다

장애인·거동불편 수험생 이송·시험장 구급대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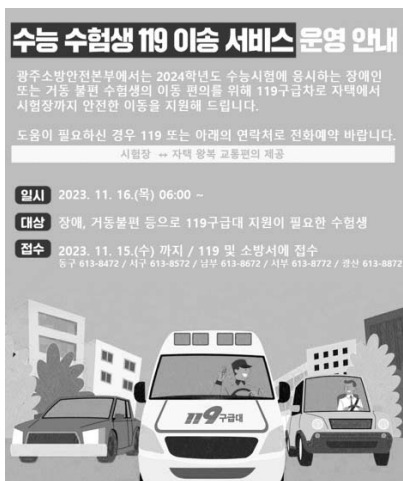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119이송 서비스를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119이송 서비스는 장애인 사고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화 예약을 받아 시험 당일 119구급차로 자택에서 시험장까지 수험생을 데려다주고 시험이 끝난 뒤 다시 자택까지 이송하는 서비스다.

119이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이날부터 시험일 하루 전인 오는 15일까지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예약하면 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시험장 내 응급환자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자로 구성된 구급대원을 모든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동학농민군 사죄비’ 세운 나카츠카 교수 영면…김영록 지사 애도

조선 침략사 연구 등 왜곡 역사 바로잡는데 평생바쳐

전남 동학농민혁명 조명·동요 연구자료 도립도서관 기증



일 관계사 진실규명에 평생을 바친 ‘일본의 양심’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 주도로 전남 나주에 세워진 ‘동학농민군 희생자 사죄비’ /나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근대 한일 관계사 진실규명에 평생을 바친 ‘일본의 양심’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가 지난달 29일 향년 94세로 별세함에 따라 영면을 기원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는 1960년

대부터 청일전쟁을 비롯한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사 연구에 힘쓰며 왜곡된 한·일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데 기여했다.

그동안 여러 저서를 통해 일본군의 경복궁 불법 점령과 동학농민군 학살 등 거짓으로 점철된 실상을 세

상에 밝혔다.

전남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는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전남도와 깊은 인연을 맺기도 했다.

나카츠카 교수는 지난 2012년 평생토록 수집한 동아시아 근대사 연구자료 1만3000점을 전남도립도서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했다.

2013년 10월에는 전남도청을 방문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간명 깊은 강연으로 큰 울림을 줬다.

일본인으로 처음으로 동학군 토벌 최대 희생지 나주에 ‘동학농민군 희생자 사죄비’ 건립을 추진해 10월30일 제막이 이뤄지면서 다시 한번 참된 역사의 의미를 일깨워줬다.

김영록 지사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한·일 양국이 평화와 화해, 상생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 숭고한 뜻을 잇겠다”며 “영면의 길을 떠난 나카츠카 교수께 200만 전남도민의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하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 일본사업소장을 통해 조화와 애도 서한문을 전달하고 조문토록 했다.

/김 호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브로커 문흥식, 2심 징역 4년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계약 비위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문흥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추징금 9억 70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선배 이모(76씨)와 공모해 2016년 3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 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홀로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한솔기업 등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문씨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공사 수주 비리가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90일 동안 해외 도주 혐의 부인한 점,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 850만건 빼낸 해커

일당 검거…SNS로 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해킹을 의뢰 받아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누리집(웹사이트)에서 빼낸 개인 정보 850만여건을 불법 취득,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문해커 A(31씨), 알선책 B(26씨), 영업 목적으로 해킹을 의뢰한 C(30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 판매 중개책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SNS 대화 기능을 활용해 해킹 의뢰를 주고 받았으며, 직접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으로 대출입·골프장·중고차·로또 정보 제공 등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 1125곳에서 고객정보 850만여건을 빼들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커 A씨는 자동 해킹 프로그램, 휴대전화 저장 정보 원격 전송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해커, 유출 정보 공급책, 알선책, 판매책 등 전 조직 형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알선책이 의뢰하면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의뢰자가 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직접 해킹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